# 대릴 먼로, 위기의 KGC 구해내다

## 가스공사와 연장 끝에 87-85 신승
## 오세근 '더블더블', 변준형 26득점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인삼공사는 29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홈경기에서 87-85,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인삼공사는 24승 11패로 2위 창원 LG(22승 13패)와의 승차 2경기 차로 1위를 유지했다.

인삼공사 오세근은 더블더블(18점·11리바운드)을 달성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고 변준형도 26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1쿼터 2-5상황에서 배병준의 3점슛이 림에 꽂히며 동점을 만든 인삼공사는 연달아 4점을 추가해 리드를 잡았다.

이후 17-11에서 오세근이 3점슛을 성공시키며 한국가스공사의 추격을 뿌리쳤고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하며 26-14로 1쿼터를 마쳤다.

2쿼터 인삼공사는 공격 상황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고전했다. 43-30에서 이대성에게 자유투 2점을 내주고 이대헌에게 3점슛 2개를 허용해 43-38로 3쿼터를 맞았다.

29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안양 KGC인삼공사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인삼공사 대릴 먼로가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KBL 제공

인삼공사는 3쿼터 변준형과 문성곤의 활약으로 리드를 지켜냈지만 4쿼터 60-54에서 한국가스공사 이대성에게 3점을 헌납한데 이어 데본 스캇에게 2점과 자유투 1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대릴 먼로와 오세근이 2점씩 넣으며 73-74, 1점 차 까지 따라붙은 인삼공사는 경기 종료 7초를 앞두고 한국가스공사 이대성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변준형이 자유투 1점을 올린 뒤 쿼터 종료 직전 먼로가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켜 기적같은 동점을 만들어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인삼공사는 연장전서 박지훈이 자유투 2개를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치던 양팀의 승부는 먼로의 손에 의해 결정 났다. 연장 종료 2초 전 85-85에서 먼로의 손을 떠난 공이 링을 통과하며 87-85, 인삼공사가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한편 같은 날 수원 kt소닉붐은 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양홍석(26점), 하윤기(18점), 재로드 존스(15점), 정성우(10점)가 분전했지만 80-81로 석패했다.

이날 패배로 kt는 15승 50패로 8위를 유지했다.

유창현 기자

# kt 위즈, 2023시즌 선수단 연봉 계약 완료

## 강백호, 47.5% 삭감된 2억 9000만 원
## 엄상백, 150% 인상된 2억에 '도장'

프로야구 kt 위즈가 중심타자 강백호(24)와의 계약을 끝으로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마무리 했다.

kt는 29일 재계약 대상자 61명과 2023 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두 차례 큰 부상으로 144경기 중 6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5, 6홈런, 25타점에 그치며 데뷔 후 최악의 성적을 낸 강백호는 지난 시즌보다 47.5% 삭감된 2억 9000만 원에 계약했다.

kt는 연봉 산정 시스템에 맞춰 삭감액을 통보했지만 강백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연봉 협상이 길어졌다.

구단은 설득 끝에 선수단 스프링캠프 출국을 하루 앞둔 28일 밤 강백호와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

강백호는 연봉 계약이 늦어진 탓에 선수단과 함께 출국하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항공편 예약 등 행정적인 절차로 강백호는 31일 따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스프링캠프 훈련은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백호를 제외한 kt 선수단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애리조나로 이동했다.

올 시즌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투수 엄상백이다.

엄상백은 2022시즌 연봉 8000만 원에서 150% 인상된 2억 원에 계약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33경기에서 11승2패,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했다. 승률 0.846으로 승률왕 타이틀도 따냈다.

또 불펜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김민수는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김민수는 2022시즌 연봉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오른 2억 5000만 원(인상률 117.4%)에 계약했다.

김민수는 76경기에서 5승4패, 30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1.90으로 활약했다.

외야수 김민혁은 프로 데뷔 후 첫 억대 연봉에 진입했다. 지난 시즌 9000만 원에서 66.7% 인상된 1억 5000만 원에 계약하며 야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포수 김준태(1억원)와 오윤석(1억 2000만원)도 나란히 첫 억대 연봉에 올랐다.

외야수 배정대(3억 4000만원)와 조용호(3억 2000만 원)는 나란히 8000만원 인상되면서 야수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유창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수원 삼성 이병근 감독 "축구 명가 수원 명성 반드시 되찾겠다"

### 2023 K리그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

## '셀틱 이적' 오현규 빈자리 물색 중
## 용병·국내선수 등 즉시 전력감 최우선
## U22 활용 위한 선수 발굴도 '큰 숙제'

"재도약을 해야 하고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는, 같은 색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명가 재건'에 나서는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 이병근 감독은 지난 27일 제주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현규의 빈자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은 오현규를 스코틀랜드 프로축구리그 셀틱FC로 보내면서 300만 유로(약 40억 원)의 두둑한 이적료를 챙겼지만 팀내 최다골(13)을 넣은 오현규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감독은 "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팀에 잘 맞는 선수를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오게 된다면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K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좋다"면서 "바로 결과를 내야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현규의 대체자로 여러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용병선수든 국내선수든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라면서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그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팬들의 불안함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꿈을 찾아 수원을 떠난 오현규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도 드러냈다.

"이번 시즌 기대하고 있던 선수라 이적을 허락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입을 연 그는 "현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막는다면 많은 원망을 들을 것 같았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여름 셀틱에서 오퍼가 왔을 때 현규가 찾아와 '어릴 때부터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 꿈을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현규의 이적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오현규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다. 이 감독은 "(해외 리그에)가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을 텐데, 현규는 그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셀틱에서 성공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U22 활용과 관련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직면한 하나의 큰 숙제"라고 했다.

"현규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 감독은 "수원은 유소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어리고 훌륭한 자원이 풍부했지만 현규가 나간 다음 미팅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찾고 있다. 가능성 있는 선수가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동계 훈련에서 그런 선수들을 잘 관찰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이적생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이 감독은 "공격에 있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그 중심에는 바사리가 있다. 바사리는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 시즌 K리그2 도움왕 출신 아코스티에 대해서는 "작년 수원에 아쉬웠던 부분이 측면에서 직선적이고 상대 공간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던 것이다. 아코스티는 안양에서 가치를 증명해 냈고 오른쪽 측면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바사리와 아코스티의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훈련할 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호평했다.

끝으로 이 감독은 "작년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김보경, 고승범, 이종성 등이 나선다면 다른 시즌 때보다 미드필더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원이 잘 나갔을 때, 예전 수원의 명성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구단에 대한 지원이 울산이나 전북보단 부족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선수들을 하나로 잘 뭉쳐서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유창현 기자

# 경기도청 스키팀, 전국동계체전 메달 사냥 '청신호'

## 전국대회서 금 3, 은 4, 동 1 획득
## 남자부 정종원 2관왕 등 주축 건재

경기도청 스키팀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전국동계체전 메달 전망을 밝혔다.

위재욱 감독이 이끄는 경기도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에서 금 3개, 은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경기도청은 이번 대회 남자부에 정종원, 변지영, 이건용, 여자부에 한다솜, 하태경, 제상미 등 6명이 출전했다.

대회 첫 날 열린 남자부 15㎞ 클래식에서 정종원이 45분48초3으로 1위에 오르고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경기도청은 같은 종목에 출전한 변지영이 45분51초7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 10㎞ 클래식에서 한다솜이 37분10초9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이틀째 진행된 남자 30㎞ 프리에서는 정종원(1시간21분01초3), 변지영(1시간21분25초9), 이건용(1시간21분47초7)이 금·은·동메달을 싹쓸이했고 여자부 15㎞ 프리에서도 한다솜이 46분48초5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도청 스키팀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77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에서 금 3개, 은 4개, 동메달3개를 수확했다. 경기도청 스키팀 제공

경기도청의 메달행진은 대회 마지막 날에도 이어졌다.

남자부 스프린트 1㎞에서 이건용이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 스프린트 1㎞에서는 한다솜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도청 스키팀은 전국동계체전 직전인 2월 3일부터 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53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에서 전력을 가다듬으며 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재욱 감독은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 20연패를 달성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수 기자

29일 포르투갈 알마다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포르투갈 그랑프리 남자 81㎏급 결승에서 이준환(용인대)이 하즈예프 엘잔(아제르바이잔)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제유도연맹 누리집 갈무리

# '유도 샛별' 이준환, IJF 포르투갈 그랑프리 우승

'유도 샛별' 이준환(21·용인대)이 올해 처음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의정부 경민고 출신인 이준환은 29일 포르투갈 알마다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포르투갈 그랑프리 남자 81㎏급 결승에서 하즈예프 엘잔(아제르바이잔)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준환은 정규시간 4분 동안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1분 4초와 3분 32초에 각각 지도(반칙) 1개씩을 뺏았는 등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장전에 들어간 이준환은 지친 기색 없이 공격을 이어갔고, 연장 13초 만에 오른쪽 어깨로 상대를 업어쳐 절반을 따냈다.

정민수 기자